

프린스턴대학교와 CJ AI Center, AI 연구 협업계약 체결 예정

서울 — 필 머피 미국 뉴저지 주지사의 참관 하에 뉴저지 주 소재 명문 대학교인 프린스턴대학교와 한국에 본사를 둔 유명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기업 CJ AI Center 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Choose New Jersey 주지사 주재 동아시아 경제 사절단 회의에서 체결된 이번 협의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컴퓨터 및 정보과학 분야의 두 기관 간 공동 연구와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머피 주지사는 “이번 협의는 뉴저지와 한국의 발전하는 인공지능 분야 리더의 위치를 입증하며 세계 최고 인재들의 연구 성과를 조합할 엄청난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높은 명성을 얻고 있는 프린스턴대학교 연구자들과 CJ AI의 글로벌 업계 리더들의 협업은 바이오기술의 미래를 재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MOU에는 2023년 10월 19일 크레이그 아놀드 프린스턴대학교 혁신 부학장과 이치훈 CJ AI Center 최고디지털책임자가 서명했다.

이번 협의로 생산 및 바이오엔지니어링 관련 인공지능 적용 연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학제 협업을 통해 업계 리더, 학계 전문가, 소비자 간의 대화가 활발해지고 과학 개발의 잠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MOU는 뉴저지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다각화하는 중추적인 시점에 체결된다.

크레이그 아놀드 프린스턴대학교 혁신 부학장은 “이번 협의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 획기적인 연구를 하고 이번 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신진 기술을 업계의 니즈에 맞게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CJ 협업자들과 함께 이번 협의를 이행함으로써 어떤 흥미진진한 잠재력을 보게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치훈 CJ 최고디지털책임자(CDO) 겸 CJ AI Center 총괄은 “프린스턴 AI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목적은 AI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하고 전문가들의 지식을 CJ의 업계 지식 및 자원과 조합하는 것”이라면서 “목적은 혁신 솔루션을 개척하고, 혁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업계 리더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여 핵심 분야에서의 탁월성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웨슬리 매튜스 Choose New Jersey 사장 겸 CEO는 “뉴저지의 혁신적인 기술 분야 성과는 이런 류의 협업을 위한 완벽한 배경”이라면서 “프린스턴대학교와 CJ AI Center는 업계의 AI 활용 방식을 함께 혁신할 것이다. 이번 파트너십은 떠오르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혁신을 조성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전향적으로 사고하는 환경으로서 뉴저지의 위상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뉴저지 동아시아 경제 사절단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한 취재진은 마헨 구나라트나(mahen.gunaratna@nj.gov)와 잉그리드 오스틴(iaustin@choosenj.com)에게 문의하거나 choosenj.com/EastAsiaMission에 방문하여 추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hoose New Jersey 소개

Choose New Jersey는 뉴저지 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영리 경제 발전 단체입니다. 뉴저지 경제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자본 투자를 촉진합니다. 전 세계에 뉴저지를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놀기 좋은 곳으로 알리고 있으며, 뉴저지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려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주 정부 기관과 민간 파트너 기관의 지원을 받는 당사 직원은 뉴저지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밀 유지 무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choosenj.com 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